

국제뇌교육협회 발행 뇌교육 온라인소식지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IBREA News 2008.2

뇌교육 국내 및 해외 소식



해외 100개국에 지부를 두고 뇌교육의 연구, 보급, 인증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뉴욕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 뇌교육 세계화를 이끄는 중추기구 www.IBREA.org

□ 한국뇌과학연구원, 유엔 DPI(공보처) 정식회원 등록추진



국제뇌교육협회의 자문기관이자 유엔자문기구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은 뉴욕에 개설된 뉴욕 UN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엔 DPI(공보처) 정식회원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엔공보처는 유엔의 전체 홍보를 담당하며 UN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이다.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08년 120명 신입생 유치하며 현직 교사들의 높은 관심 반영



국제뇌교육협회의 자문기관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은 교명을 바꾼 이후, 상반기 첫 신입생 모집결과 총 120명을 유치했다. 이 숫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문대학원으로서 주목할 만 한 수치이다. 신입생의 상당수는 현직교사이다.

□ 노인건강 분야 한-미간 뇌교육 공동연구



한국뇌과학연구원과 캘리포니아 주립 플러튼대학 노인건강연구소는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뇌교육’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이승현 원장과 제시 존슨 소장은 ‘In Full Bloom’이란 노인건강 뇌교육서를 미국에서 공동 출간했다.

□ 뇌교육 보급하는 해피스쿨, 2월 한달간 4개 학교 협약체결 (해피스쿨 5호)



뇌교육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캠페인으로 펼쳐지고 있는 ‘해피스쿨’이 인천 능내초등학교, 전남조리과학고, 인천 덕상중학교, 전남 나주 동강중학교에 도입되어 작년 1호에 이어 5호까지 이어졌다. 협약 체결학교는 다양한 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대전 국학원, 경기북부 국학원 초청 ‘뇌교육 세계화’ 강연

대전 국학원과 경기북부 국학원은 각각 18일(대전국학원), 20일(일산 킨텍스)에 한국 뇌교육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정보충족을 위해서, ‘한국 뇌교육 세계화’에 대한 뇌교육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대전지역 국학활동가를 비롯해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층들이 참가해 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IBREA USA]

캘리포니아주립 노인건강연구소,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뇌교육 공동연구



2월 19일(미국 현지 시각), 국제뇌교육협회 자문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 이승헌 원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풀러튼대학 노인건강연구소를 방문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뇌교육'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개발한 뇌교육은 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5단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건강증진, 성격개조, 집중력향상, 기억력 및 학습능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어, 현재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기개발, 노인건강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뇌교육은 미주 3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시니어센터를 비롯 전 세계 약 3,000여 곳에 도입되어 있다. 이번 공동연구는 노인 건강을 위한 뇌교육의 효과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인건강연구소 소장인 제시 존스 박사가 큰 관심을 보이며 이루어졌다.

이승헌 원장은 “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계기로 노인건강분야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립 풀러튼대학 노인건강연구소는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각종 연구와 리서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노인들의 체력, 근력, 유연성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시니어 피트니스 테스트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곳이다. 이승헌 원장과 노인건강연구소 소장인 제시 존스 박사는 최근 [In Full Bloom : A Brain Education Guide for Successful Aging]이라는 책을 공동저술, 출간한 바 있다.

[IBREA KOREA] 뇌교육 해피스쿨 2~5호 협약

2월 한달간 해피스쿨 2-5호 협약



뇌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해피스쿨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피스쿨 캠페인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지역 국학원, 각급 학교가 지역 사회 교육공동체 및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뇌를 잘 쓰는 학교, 서로 통하는 학교, 흡연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운동이다. 2007년 12월 5일 천안의 성남초등학교의 제1호 협약식 이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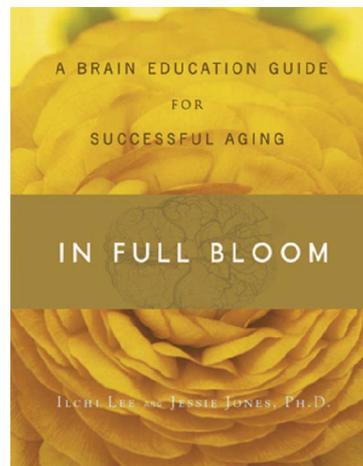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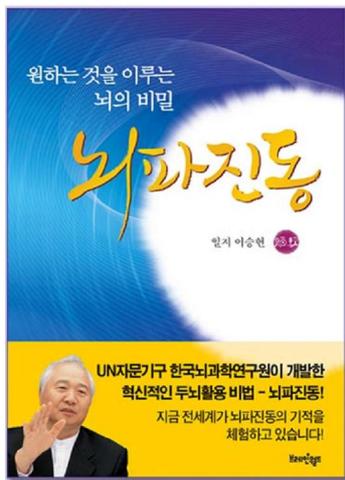
제2호 협약체결은 2월 22일 인천 능내초등학교(교장 정홍진)에서 이뤄졌다. 능내초등학교는 앞으로 재량활동과 관련교과 시간,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으로 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제3호 협약체결은 2월 25일 전남조리과학고에서 전남 국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전남조리과학고(교장 권상훈)간에 체결되었다. 전남조리과학고는 협약식 체결을 통해 방과후 수업, 교사 12명 대상의 원격연수, 전교생 대상의 청소년BOS강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국제HSP브레인올림피아드 대회에도 학생 120여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 국학원은 전남조리과학고에 '아이 안에 숨어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40권을 기증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덕산중학교와 전남 나주 동강중학교가 각각 해피스쿨 4,5호 학교로 협약이 이루어져, 신학기가 개설되는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협약을 체결한 학교들은 5년간의 협약기간동안 주체적인 인식과 바른 정체성, 육체적·사회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열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맞게 선택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학생대상으로 활기찬 학급을 위한 5분 뇌교육 명상, 인재를 키우는 뇌운영프로그램 BOS교육, 학교폭력 선도학생 교육, 금연교육, 방과후 학교(뇌교육 인성), 홍익청소년 인성수련, 나라사랑 인성 수련, 계발활동 등이 있다. 교사를 위해서는 뇌교육 강의, 해피클래스 연수, 뇌교육 교사과정, 원격연수 등이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뇌교육 부모특강과 연수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해피스쿨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교육에서의 뇌교육 보급 역시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IBREA- USA/KOREA] 한국, 미국서 자기개발/노인건강 뇌교육서 출간

- ‘뇌파진동’, 한국에서는 자기개발에 초점
- ‘In Full Bloom’, 제시 존슨 박사와 이승헌 협회장 공저로 노인건강 뇌교육서로 출간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은 2월 한국에서 뇌교육 자기개발서 <뇌파진동>을 처음 발간했다. ‘뇌파진동’은 UN자문기구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개발한 독창적인 기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진동을 온몸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몸과 뇌에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우리 몸과 뇌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특히 뇌 기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고, 혼란하고 산만한 뇌파를 안정되게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2월 17일, 인디언의 성지이자 연간 500백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에서 뇌교육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캘리포니아 주립 노인건강연구소 제시 존슨 소장과의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은 공동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뇌교육가이드’란 부제로 <In Full Bloom>이란 노인건강 뇌교육저서를 출간하고, 세도나 시장의 축사로 세도나 도서관에서 저자의 뇌교육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